제1장 초기생애

동석기(董錫琪)는 조선후기(朝鮮後期) 고종(高宗, 재위 기간: 1863.~1907.) 18년 때인 1881년 4월 6일 함경남도(咸鏡南道) 북청군(北靑郡) 이곡면(泥谷面) 소재지인 초리(初里)의 '동씨촌(董氏村)'으로 알려진 상함전(上咸田)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친은 광천동씨(廣川董氏)의 23대손인 동주홍(董周洪)이고, 그의 모친은 삼척(三陟) 김씨(金氏) 부인이다. 이들은 5남매(4남 1녀)를 출산하였는데, 동석기는 그중에 장남(長男)으로 태어났다.

'동 씨'는 시조(始祖)가 이곡면에 뿌리를 내리고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함경도지방에서 훌륭한 가문에 속하는 집안으로 소문나기 시작했다. '동 씨'는 주로 북한지역인 함경남도와 강원도(江原道)에 집성촌(集姓村)을 이루고 있다. '동 씨' 시조는 동중서(董仲舒)로 알려져 있는데, 그는 중국(中國) 한(漢)나라 무왕(武王) 때 유학(儒學)에 조예가 깊은 사람으로 이름이 매우 높았다. 그리고 그의 42대손인 동박소(董博蘇)에게는 3형제 즉 '계선(啓宣), 승선(承宣), 그리고 인선(印宣)'이 있었다. [『수원일보』(2012.5.1, 「남에는 유관순, 북에는 동풍신」.]

우리나라에 정착하여 사는 '동 씨'는 동중서의 43대

손 중 차남(次男)인 동승선의 후손들이다. 동승선은 명(明)나라 때 접위사(接慰使)로 조선(朝鮮)의 개국과 함께 나라에 공을 세우므로 영천군(永川君)에 봉해졌던 인물이다. 그리고 그는 벼슬에서 물러난 후부터 함경남도 북청군 이곡면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는데, 동석기는 광천동씨 동승선의 24대손(二十四代孫)이다. [『위키백과 사전』, 광천동씨.]

동석기의 출생지인 함전 마을 뒤로는 산이 기다란 병풍(屛風)처럼 아름답게 초록빛을 띠며 빙 둘러 있었고, 함전 마을 앞에는 널따란 들녘이 잔잔하게 물결치듯이 시원스럽게 펼쳐져 있었다. 또한, 함전 마을은 상함전 마을과 하함전(下咸田) 마을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동석기가 살았던 집은 상함전 마을에 있었다. 그리고 상함전 마을은 30여 채의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아주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었다.

초리 전체 면적의 60%는 산림이었고, 나머지는 농경지가 분포되어 있었다. 먼저 산림에는 주로 소나무, 참나무, 피나무, 잣나무, 호두나무, 그리고 밤나무 등이 많이 있었다. 또한, 머루와 다래 등도 쉽게 따 먹을 수 있었으며, 곳곳에 많은 약초도 캘 수도 있었다. 다음으로 농경지는 논 20%, 밭 50%, 그리고 과수밭이 30%를 차지하고 있었다. 농경지에서는 주로 조, 콩, 팥, 보리, 감자, 벼, 옥수수, 사과, 배, 그리고 복숭아 등이 생산되

었다. [「북한지역 정보넷」, 행정구역관리: 초리.]

이렇게 전형적인 농촌 지역인 초리 상함전 마을에 살았던 동석기의 집안은 논과 밭을 남부럽지 않을 만큼 소유하고, 농사를 지어 생계를 유지해가는 중산층(中産層)의 가정이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은 전통적으로 유학(儒學)에 조예가 깊은 유학자로 이름이 높았던 조상을 두고 있었기에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유교(儒敎)를 절대적으로 신봉(信奉)하고 있었다. 그래서 동석기는 어려서부터 선택의 여지가 없이 마을에 있는 서당(書堂)에서 훈장(訓長)으로부터 유교식 서당교육을 받으며 성장했다.

서당교육은 16세기 조선 시대 중종(中宗, 재위 기간: 1506.~1544.) 때부터 시작되었다. 서당은 향촌(鄕村) 사회 즉 시골의 마을에 생활 근거를 두고 농민을 지배하던 계층으로 문벌이 높은 집안, 또는 그 자손인 사족(士族)과 일반 평민이 주체가 되어 '면(面), 동(洞), 리(理)'를 기본단위로 설립되었던 현재의 초·중등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사설 교육기관을 말한다. 서당은 가르치는 훈장과 배우는 학생으로 구성되었는데, 규모가 큰 서당은 학력이 우수하고 나이가 많은 학생을 접장(接長)으로 세워 하급 과정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서당; 『위키백과 사전』, 서당.]

서당에 다니는 학생은 8~15세의 나이에 해당하는 양반(兩班)의 자녀들은 두말할 것도 없겠지만, 일반 평민의 자녀들도 함께 다녔다. 그러나 이들이 서당에서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달라도 너무 달랐다. 양반의 자녀들은 처음부터 과거(科擧)에 응시하는데 필요한 실력을 쌓는, 즉 과거에 합격하려는 방법을 배우는 데 목적을 두었다. 그렇지만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던 평민의 자녀들은 수신제가(修身齊家) 즉 몸과 마음을 닦아 수양하고 집안을 다스리는 일상적인 교양이나 생활의례 및 관례(冠禮), 혼례(婚禮), 상례(喪禮), 제례(祭禮)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데 그쳤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서당; 『위키백과 사전』, 서당.]

서당이 처음에는 선비들이 모여 학문을 강론(講論)하고, 학식이 많고 학문이 깊거나 충성스러운 절개로 죽은 사람을 제사 지내던 곳인 '서원(書院)'에 부속된 형태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17세기부터 서원에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명실공히 독립 교육기관으로 자리를 잡았다. 서당에서 가르치는 유교 중심의 교과목(敎科目)은 글을 읽고 그 뜻을 밝히는 강독(講讀), 시나 글을 짓는 제술(製述), 그리고 붓글씨를 연습하는 습자(習字) 등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서 강독의 기초적인 동몽교재(童蒙敎材)로는 다음과 같은 책들이 있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서당; 『위키백과 사전』, 서

당.]

“⑴ 중국 양나라의 주흥사(周興嗣)가 양무제(梁武帝)의 명으로 지은 책인 『천자문(千字文)』, ⑵ 유학자인 박세무(朴世茂)와 민제인(閔齊仁)이 학문을 처음으로 배우는 아이들을 위하여 지은 책인 『동몽선습(童蒙先習)』, ⑶ 역사 과목인 『통감(通鑑)』, ⑷ 8세 안팎의 아이들에게 유학(儒學)을 가르치기 위하여 만든 수신서인 소학(小學), 논어(論語), 맹자(孟子), 중용(中庸), 그리고 대학(大學)의 총칭인 『사서삼경(四書三經)』 등이다. 또한, 부교재 격으로는 간략한 역사책인 『사기(史記)』, 문학인 『당송문(唐宋文)』, 완계롱(完溪弄)이 1931년 친필로 수기(手記)한 당나라 한시 모음집인 『당률(唐律)』 등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서당; 『위키백과 사전』, 서당.]

서당의 종류는 설립한 주체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훈장이 스스로 생계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나 취미생활로 경영하는 ‘훈장자영서당(訓長自營書堂)’이다. 둘째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식인이 자신과 친인척들의 자녀들만을 모아서 교육하는 ‘유지독영서당(有志獨營書堂)’이다. 셋째는 마을의 유지 몇 사람이 훈장의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면서

자신과 친인척들의 자녀들만 교육하는 '유지조합서당(有志組合書堂)'이다. 넷째는 마을 전체 구성원이 훈장에 대한 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여 마을의 모든 청소년을 교육하는 '촌락조합서당(村落組合書堂)'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서당; 『위키백과 사전』, 서당.]

동석기는 촌락조합서당에 다닌 것으로 여겨지며, 그는 양반의 자녀였기에 당연히 과거에 응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다녔다. 그는 또래 아이들보다 몸집이 훨씬 컸으며, 썩 영리하고 재주가 있어 다른 아이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학습 진도가 매우 빨랐다. 이 때문에 아이들의 시새움을 받았지만, 훈장으로부터는 자주 많은 칭찬을 받았다. 반면에 장난이 지나칠 정도로 너무 심하고, 성격이 대담하며 모험심도 강했다. 그러다 보니 또래 아이들이 생각해 내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래서 그는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훈장으로부터 꾸지람을 듣기도 하였다.

동석기의 아버지는 비교적 개방적으로 자녀들을 키우는 교육사상(教育思想, educational thought)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기에 그는 아들인 석기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석기가 서당에서 훈장에게 칭찬을 듣든 꾸지람을 듣든 어떤 얘기를 듣든지 마음에 두지 않고 자유스럽게 행동하도록 석기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그리고 석기의 행동들을 대체로 모

르는 체하였으며, 슬며시 인정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나름대로는 석기에게 큰 기대를 걸고 지켜보고 있었다. 그렇지만 작은마을 서당의 훈장에게서 배우는 유교식 서당교육으로는 석기의 큰 꿈을 만족시켜주지 못했다.

동석기는 변함없이 더 넓은 세계에 대한 동경심(憧憬心)과 새로운 학문에 대한 강한 욕구를 표출하지 못해 늘 아쉬워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주변의 발전되어가는 도시지역 등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살펴보기도 하였다. 그러던 1894년 14세(만 13세) 때이던 어느 날 그는 더 넓은 세계로 나가고 싶은 모험심 때문에 부모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무작정 한양(漢陽)으로 가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돌아오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동석기의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던 '동 씨' 집안 어른들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모여 대책을 의논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집안 어른들은 동석기의 부모에게 "석기의 혼인을 서두르라"라는 요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하루가 멀다고 어른들의 성화(成火)는 계속되었다. 이에 동석기의 부모는 집안 어른들의 강한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하는 수 없이 1897년 동석기의 나이 17세(만 16세) 때의 겨울철 어느 날 서둘러 혼인을 시켰다.

동석기의 신부는 집안에서 짝을 지어준 김해(金海)

김씨(金氏) 가문의 15세(만 14세) 소녀인 김에머(Kim Emme)였다. 그러나 그녀는 동석기가 한 번도 만나 본 적이 없는 모르는 소녀였다. [He speaks for Korea] 그는 훗날 이렇게 부모 중심으로 이루어진 자신의 혼인(婚姻)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결혼하는 그 시간까지 나는 신부가 예쁜지, 아름다운지, 미운지, 그리고 추한지에 대하여 전혀 알지를 못했다. 왜냐하면, 조선은 남녀칠세부동석(男女七歲不同席)이라는 유교의 교리에서 자랐기에 무엇보다도 부끄러워서 머리를 들고 상대방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조선 시대의 혼인제도(婚姻制度)는 세종(世宗, 재위기간: 1418.~1450.) 때부터 남자 16세 이상, 여자 14세 이상이 되면 누구든지 아무런 조건 없이 혼인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하였다. 그러나 사정상 나이 어린 자녀를 혼인시켜야 할 경우가 발생하면, 부모 중 한 사람만 50세 이상이 되면 12세 이상 된 남녀는 혼인할 수 있다는 외에 규정도 두기도 했다. 이러한 혼인제도에 대하여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다.

“남자는 16세 이상, 여자는 14세 이상으로 혼인을 허가하되, 그중에 부모의 나이가 50이 지나서 사정상 혼인시킬 것을 원하는 자는, 남자나 여자가 모두 나이 12세 이상이면 관(官)에 고하고 성혼(成婚)시킨다는 것을 이미 앞서 수교(受敎, 조선 시대 임금이 내린 명령을 적은 문서)하였으나, 이제 남자나 여자의 부모가 다 같이 50세가 지나야만 혼인시킬 것을 허가한다면 사정상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금후(今後)로는 남녀의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연세가 50에 차면, 남녀가 다 12세 이상으로 혼인하도록 허가하라” [『조선왕조실록』(세종 25년, 1443.1.7.), 「혼인 연령에 대해 예조에 전지하다.」

동석기는 혼인하였기에 당시 풍습(風習)대로 상투를 틀어 올리므로 어른이 되었다. 그렇지만, 그의 방랑

벽(放浪癖) 즉 더 넓은 세계와 새로운 학문, 그리고 모험심은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고 오히려 더 불타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1년에도 몇 차례씩 함경남·북도나 평안남·북도 지방의 중요 번화(繁華)한 지역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살펴보는 일이 계속되었다.